

TPP협상에서 미국이 일본에 요구한 내용

- 미국은 일본과의 TPP 양자협약에서 자동차 분야의 규제완화, 금융 분야의 비관세 조치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여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가 주목

□ 미일 양자간 협의

- 2013년 8월 7일부터 9일까지 도쿄에서 개최된 TPP관련 미일 양자간 협의에서 미국은 일본에게 자동차 분야의 규제완화 및 금융 분야의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
 - 8월 7일, 미국은 일본 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한 의도로 일본의 자동차 연비와 소음 규제 등 성능 기준에 대해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
 - 미국의 요구에 대해 일본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미국의 요구를 거부, 8월 9일, 협의를 재개하였지만 결론이 나질 않아 다음 협의에서 논의하기로 함
 - 미국은 자동차 분야 외에도 국제 속달우편의 절차 완화 등에 대해서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

□ 미국이 일본에 요구한 사항

- 일본의 자동차 소음 규제는 시속 50km에서 72데시벨, 50km 이상 속도는 76데시벨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미국은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철폐를 요구
 - 미국은 소음에 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일본 판매를 위해서는 자동차의 설계를 변경해야 함
- 연비와 충돌 안전실험에 대해서는 미일이 자동차 충돌 각도*, 가속 및 감속 방법, 일시정지 시간 등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 기준을 채택해 줄 것을 요구
 - * 미국은 자동차 충돌 실험 시 정면충돌실험만 실시하고 있으나, 일본은 여러 각도에서 충돌실험을 하기 때문에 심사기준이 엄격
 -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자동차세 관련규정도 미국 자동차에 불리하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

- 미국은 일본정부에서 출자한 일본우정의 국제우편서비스가 미국의 페덱스(FedEx) 등 외국기업 우편물에 대한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

- 이에 대해 일본은 일본우정의 주식상장계획 등을 제시하면서 “이미 신속한 통관 절차를 도입했다”고 설명

- 일본우정이 미국의 보험회사인 애플랙(Aflac)과 연계를 강화하는 등 보험 분야는 타협 가능성이 높지만 국제속달우편에 대한 타협은 쉽지 않을 전망

< 미국의 요구 사항 >

[자동차]
소음 규제 완화
미국방식의 연비실험·충돌안전실험 도입
주간 주행등 허가
대형배기량자동차의 자동차세 개정
[비관세장벽]
간보생명의 비전 명시
속달우편의 절차 간소화
저작권의 보호기간 강화
공공사업의 외자 참여

- 미국 통상대표부의 마이클 프로먼(Michael Froman) 대표는 제19차 TPP 협상회의 직전인 8월 19일, 일본을 다시 방문하여 관계부처 장관들과 협상하기로 했다고 발표

□ 일본의 TPP 협상 전략

- 일본정부는 미일 양자간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제19차 TPP 협상 전략도 대비하고 있는데, 8월 중순까지 협상참가국들이 관세 철폐·인하 방안을 제시할 예정

- 일본정부는 19차 회의에서 무역품목의 자유화율을 70~80% 정도로 제시할 예정이나, 참가국들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쌀, 설탕 등 중요 5개 품목에 대해서는 발표를 보류할 방침

< TPP 협상 일정 >

8월 4~5일	TPP 협상단 1차 합숙
8월 7~9일	미일 협의
8월 13~15일	TPP 협상단 2차 합숙
8월 중순	관세철폐·인하방안 제시
8월 22~30일	제19차 협상회의

- 일본이 지금까지 체결한 2국간 FTA의 자유화율은 80%대이기 때문에 TPP에서도 같은 수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며, 곤약이나 수산물 등 지금까지 관세를 철폐한 적이 없는 품목은 미정으로 남겨둘 예정

- 100명이 넘는 TPP 협상단은 8월 4~5일 합숙하면서 제19차 회의 협상방침 등을 논의하였고, TPP 조약 방안 등을 정리한 텍스트를 분석 중

* 8월 13~15일 두 번째 합숙에서 협상 방침을 결정

□ 시사점

- 미의회 조사국은 8월 2일, 미일관계에 관한 최신 보고서에서 TPP가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분석

- 아베 정권이 최소한 2016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일본의 경제 정책이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 중시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
 - *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봄에 일본을 공식 방문하는 일정을 조정 중
- 미일간 안보협력이 경제협력으로 강화되면 한중일FTA나 RCEP 등 동아시아지역의 경제 협력 틀을 만드는데 있어 미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
- 일본이 TPP에 참가하게 되면 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과 일본 제품의 경쟁이 치열해져 그동안 미국시장에서 누려왔던 이익이 반감될 것으로 예상
- 미일 양국은 미국의 자동차 분야의 관세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한 다음 철폐하기로 합의
 - * 한미FTA에서는 승용차는 2016년까지, 트럭은 2021년까지 관세철폐 방침
- 한미FTA 발효효과가 약화되지 않도록 미일간의 협상과정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, 미국이 요구한 일본의 자동차 시장에 대한 규제완화, 비관세장벽 완화조치에 대해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
<참고자료>

넷케이신문(2013.8.1/2/4/5/7/9)